

용수리,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절부암제'

비용 총당 祭田도 운영...맹지여서 매각, 다른 밭 매입 추진

데스크승인 2014.06.26 김현종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주민들은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열녀 고씨를 기리는 유교식 제사인 '절부암제'를 영덕동산 입구에 있는 제단에서 지내고 있다.

제삿날이 되면 주민들은 먼저 당산봉에 있는 부부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난 후 절부암제를 올린다.

절부암제는 대정 판관 신재우가 1866년 '절부암'을 새긴 후 용수리와 고산리 주민들에게 이들 부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매년 3월 15일에 지내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신재우는 당시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제전(祭田)도 마을에 제공했다.

용수리 주민들에 따르면, 절부암제는 한 동안 맥이 끊겼다가 해방 후 부활했다. 당시 해녀들이 모금을 주도해 약 1000㎡ 규모의 제전을 새로 마련했다.

그런데 용수리는 이 제전이 '맹지'인 탓에 효용성이 낮아 최근 매각했다.

김태두 용수리장은 "제전이 맹지여서 농사에 부적합해 그 동안 임대도 잘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올해 초 팔았다"며 "매각한 돈으로 새 제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